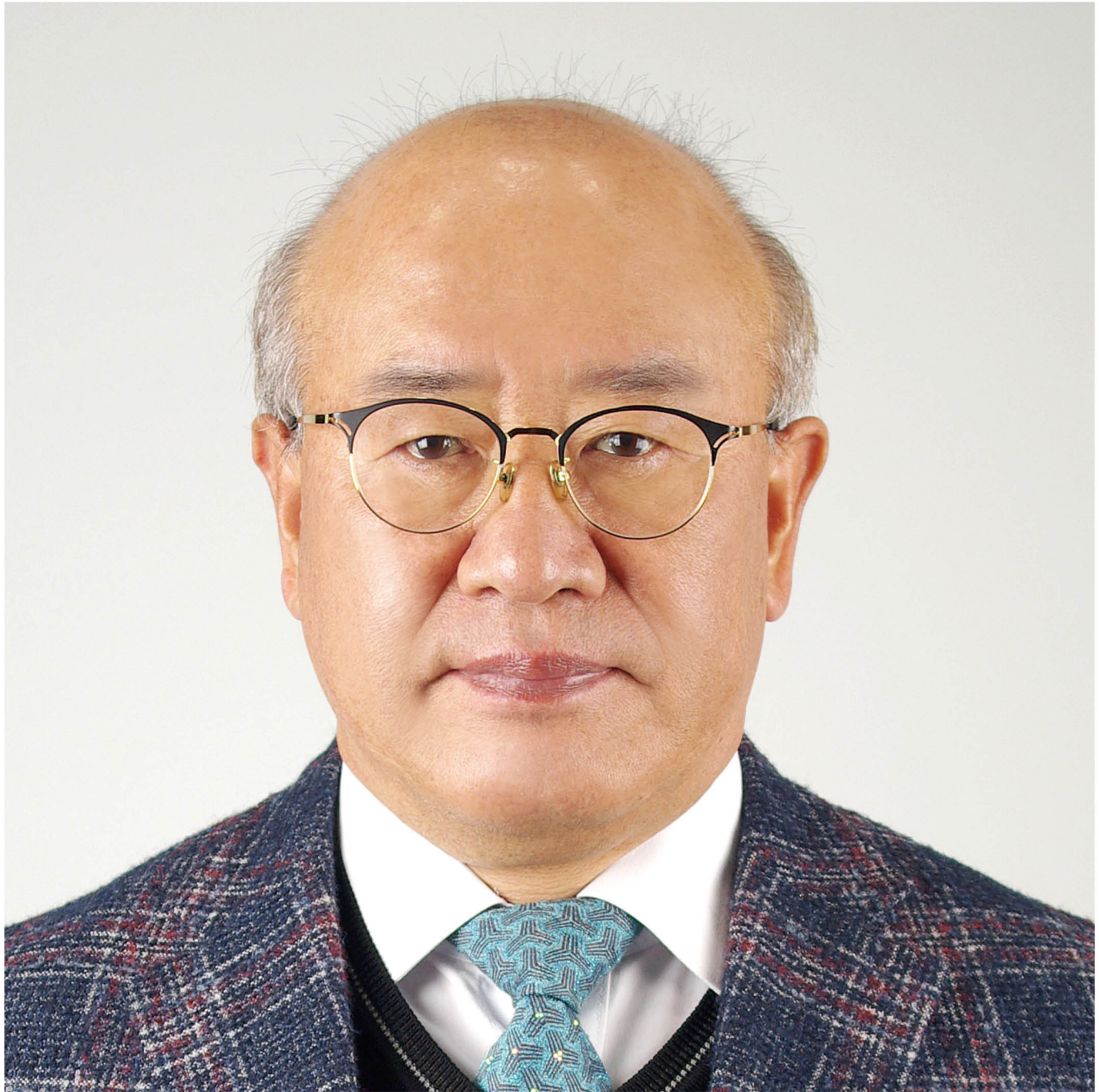




ISSN 2383-813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___ 품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이사
___ 비안도초등학교 김경주 양 ___ 365 타이어마트 강병국 대표 ___ 송한나 작가
___ 서진수산 노평호 대표 ___ 원센트 고우경 대표 ___ 군산노인회장 이래범 전 시장의
___ 군산시 코로나19 관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8회 군산대학교 캠퍼스 사진 공모전

Gunsan University
Campus Photo
Contest

2020. **11.09** 월
— **11.20** 금

공모분야 군산대학교를 소재로 한
사진 작품

접수기간 2020.11.9.(월) ~ 11.20.(금)

시상내역 총 20작품 / 총 580만원

세부내용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기타문의 063-469-7320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우리가 꿈꾸는 대학은
순수와 열정으로 세상을 흔드는
학생이 중심인 따뜻한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예금주_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기타 문의_ 063-469-7321)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SHIDAO International Ferry

상상을 그 이상으로 향해!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 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것입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장미칼럼

이 봄날엔 용서하자

군산 사회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비유하는 말로 짐작할 수 있다.

좁은 지역 사회의 폐해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진영 나누기의 긴 그림자이다. 선거가 끝나도 서로를 응시했던 그 응어리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다.

기껏해야 27만에 못 미치는 소규모 도시에서 판판이 '내 편, 네 편'이라니..... 사람 사이가 이리저리 찢기는 건 물어보나 마나이다.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볼 땐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웅다웅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군산에 들어오려면 임피나 대야를 거쳐야 한다. 돌아나갈 수는 있지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없다. 말하자면 돌아갈 길 없는 상당히 폐쇄적인 공동체이다.

금강을 다리로 연결했다지만 서로 '장항×', '군산×' 이라고 불려댔 정도로 냉소적이고 배타적이다. 손만 뻗으면 닿을 사이지만 정서는 판(?)이 다르다.

바깥사람들이 군산을 부를 때 '짬물'이라는 말도 썼다. 거친 향도의 이미지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의 교류는 매우 친교적이다. 한 우물처럼 작아서인지 모르지만 처음 볼지라도 '언젠가.... 혹은 어디선가.... 한번 쯤 보았지 않느냐'라고 인사를 건넨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여 왔다.

무슨 일이라도 군산사람끼리는 작은 여지를 주는 식으로 독특하게 발달하여 왔다. 이런 걸 두고 '군산정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 '누구네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둥', '누가 누구네 집의 누구라는 둥' 등등의 말이 쉽게 퍼졌으며, 그게 독특한 군산식 여론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진영을 나누기가 무척 어렵고 편을 나누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불편한 앞날이 기다리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위해 대리만족을 하고, 나를 대신하여 줄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결국 진영나누기 꼴이 되어버렸다.

선거는 끝나기 마련이고 승자와 패자는 엄연히 갈린다.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물 안 개구리였을망정 우린 식구였으며 서로 바라보면서 묵언의 대화, 혹은 심정적 지지로 '짬물'에 대하여 동류의식을 나누었던 사이였다.

'너 잘났다, 너 못났다' 아웅다웅하던 앙금이야 남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잔인한 4월이 다 가기 전에 말이다.

우린 다 알잖은가.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
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
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
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노가리&비어(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곰창이최고예요(수송점)_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도마(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철길마를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109 | 2020.04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장인수	isj1453@nate.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 14

새싹 하나가 나기까지는

경중호

비가 오면 생기던 웅덩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

바람은 나뭇잎을 데려와 슬그머니 덮어 주고
겨울 내내 나뭇잎
온몸이 꽁꽁 얼 만큼 추웠지만
가만히 있어 주었지

봄이 되고
벽돌담을 돌던 햇살이 스윽 손을 내밀었어
그때, 땅강아지는 엉덩이를 들어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 주었지
비가 오지 않은 날엔 지렁이도
물 한 모금 우물우물 나눠 주었지

물론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
네가 ‘팔딱’ 뛰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천재시인의 한글연구>문학동네. 2017.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
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
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
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신지
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산천은 온통 연둣빛 새싹의 향연입니다. 갓난아기
하얀 이 나뭇 땅에서, 나무에서 올라오는 새싹은
얼마나 앙증맞고 싱그러운지요. 시인은 보고 느낌
니다. 새싹 하나가 나기까지 바람, 나뭇잎, 햇살, 땅
강아지, 지렁이... 모든 자연이 돕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이 될지 모를
작은 새싹 하나도 귀히 여겨 함부로 밟고 가지 않
는 마음요. 이 좋은 마음이 모여모여 이 환난을 건
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집념과 독심으로 일군
세계적 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주)풍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이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1970년대 후반, 군산시 신영동 골목길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고려화공약품, 변변한 자본 없이 의욕 하나만으로 출발한 그 사업을 오늘날 세계 상위 수준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주)풍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이사의 성공신화가 화제다. 고려화공 당시 냉각수처리, 오페수 등 환경처리약품과 시험계측장비 등을 취급, 오로지 발로 뛰며 서해 및 남해 일대 발전소와 폐수처리장 등에 납품하면서 영세를 면치 못했던 그 사업이 1999년 (주)풍림법인으로 새출발하면서 이제는 임직원 100여명에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 내수시장을 석권하고 수출도 확대해나가는 사업체로 부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우뚝 선 데에는 조희민 대표이사의 남다른 경영철학이 밑바탕에 자리하기 때문일 터다.

인간중심의 경영

조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 소개 인사말에서 “풍림파마텍(이하 풍림)은 주사기, 주사침, 바이알, 미생물검사기, 실험분석장비, 환경약품 등 제약회사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관련제품의 제조 공급 전문기업으로서 성실과 믿음으로 고객만족과 함께 양질의 제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 또한 적극적인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시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내수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도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업경영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풍림은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기업’ ‘인간을 존중하며 나누는 기업’을 기업이념으로 표방한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와 제품혁신에 열정을 다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창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끊임없는 개발과 창의력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사회와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으로서 나눔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독일 쇼트(SCHOTT)사와의 대리점 계약

사업 초기를 돌이켜보면 거래처가 나날이 다양해지면서 제약회사의 연구소와 대학교의 실험실에서도 풍림을 찾던 2002년 경 모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 풍림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불평은 ‘프리필드주사기를 수입하는 곳이 국내 한 곳밖에 없어서 불편이 말할 수 없고 독점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가격이 비싼데다가 납품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의약품은 복잡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약물을 담는 용기조차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한 제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조 대표이사는 먼저 프리필드주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국내 제조 기업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 세계 프리미엄 주사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이끌고 있었는데 독일의 쇼트 그룹(SCHOTT AG)이 양대 산맥에 속했다. 그는 쇼트사 방문을 위해 무작정 출국 길에 올랐다. 이틀에 걸쳐 쇼트그룹 본사가 있는 독일 마인츠에 도착했지만 공장은 스위스 생갈렌(St. Gallen)에 있다하여 다시 차를 타고 스위스로 갔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고 그 담당자는 제약담당 본부장을 비롯하여 이사, 부사장이 참석하는 미팅을 신속히 추진시켜주었다. 마침 쇼트 쪽에서도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어서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렸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이사는 쇼트 측과 파마세티컬 한국대리점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마침내 프리필드주사기와 바이알, 앰플, 카트리지 등 유리 및 폴리머 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득하고 쇼트 외에도 프랑스의 스텔미(Stelmi), 스위스 베링거(Berlinger)와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처럼 막연하게만 여겼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제약업체와 병원에서 필요한 소모성 의료용품을 공급하며 호평 리에 신규 거래처가 계속 확보되었고 회사는 도약의 토대가 구축되게 된다.

돌파구를 마련해준 중소기업진흥공단

하지만 국내 소모성 의료기기 시장은 다른 의료기기 분야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단순 주사기 등 저가품 외에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조 대표이사는 이 모든 것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국내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심이 서자 회사 회의석상에서 “우리 회사도



Kopac HL 조립라인



열균기



작업장



항온항습 창고



사출라인



사출라인

의료기기를 제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직원들 사이에서 ‘수입판매가 잘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특허된 기술이 필요할뿐더러 규제도 심하고 절차도 복잡한 제조업에 나서는 건 무리’라는 반대와 만류가 심했다.

하지만 조 대표이사는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에 밀고 나갔다. 이로써 제조에 필요한 설비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고 일회용주사기를 시작으로 주사기 밀대, 손잡이 지지대 등을 본격 생산하며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2008년에는 군산자유무역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상호를 (주)풍림파마텍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직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장장 2년의 투자 끝에 클린룸을 갖춘 공장을 완공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사업에 직격탄이 된 이 사태로 회사는 자금난에 직면했고 돌파구는 암담하기만 했다. 그러자 어느 지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소개해주었다. 그 공단의 담당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적극적 자세로 조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1억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이 자금은 신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고가의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마침내 까다로운 각종 인허가를 모두 통과, 2010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품질 인증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풍림이 기술집약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발돋움한 가운데 이후로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2012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 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과 함께



신성장기반자금을, 2015년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공단의 미래지향적 지원책에 힘입어 품림은 2016년 국내 최초로 프리필드주사기를 출시하며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싹을 틔워주며 떠오르게 된다.

사실 8년 전인 2012년 경만해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규모는 약 11억 달러인데 반해 수입 규모는 17억7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적자 폭이 컸다. 당시만 해도 우리의 기술력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60~70% 수준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는 자본력,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브랜드 가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져 내수시장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품림은 국내 제약사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동아제약, 신풍제약, 녹십자, CJ, 휴맥스, 셀트리온 등 국내시장 약 80여 개 업체에 의약품 포장용기, 프리필드주사기, 1회용주사기 등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특히 주사기와 주사침 등 직접 주입용 의약품 기구는 국내시장의 30%를 차지하며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데 가축 및 동물용 주사기의 경우 시술의 편리성을 접목, 권총 형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셀트리온 등과 줄기세포용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 완성단계에 진입하여 국내 신기술 등록 중에 있기도 하다.

이는 의료 패키지사업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선진 기술력을 축적, 기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진일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 이후 ISO 9001-2000 인증을 취득하고 벤처기업 인증, 2009 군산상공회의소 5대 우수기업인, 2018 전라북도, 제조업 성장을 이끌 20개 선도 기업, 2019 군산시 유망강소기업 10개사에 선정된 품림은 이밖에도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연 매출 300억 원을 달성,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조 대표이사는 '수입에 의존하는 프리필드주사기를 그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하여 국산화하기 위해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기술 투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년 전 자신의 다짐을 상기하며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고 성장하기까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실질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새만금공장 신축 및 마스크 공장 설립 추진

품림은 지난 3월13일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 33,000m² 부지에 새만금공장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수입 의약품 포장용기를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이 공장은 올해 말 완공하여 내년부터 가동 예정으로서 178억 원이 투자되며 고용 인력만도 추가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의 기공식은 강풍 속에서 모든 임직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과 내빈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조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겪으며 미세먼지와 전염병 등 향후 사태에 대비, 마스크 생산업도 병행키로 하고 제작 기계 3대를 발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득하는 대로 6월 경부터 월 5백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3공장이 정상 가동하게 되면 품림의 연 매출액은 현재의 300억 원에서 약 20% 상승한 360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가능하고 있다.

성공의 세 가지 조건

조 대표이사에게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문자 용기, 끈기, 오기, 세 가지 ‘기(氣)’를 든다.

성공은 단 한 번의 시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뚝뚝 걸어가는 자에게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터득한 진리일 게다. 보수적 의료 및 제약업체의 특성이지만 제품 설명을 위해 방문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담당자와 겨우 인사만 하고 나온 경우도 많았지만 조 대표이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정도로 물러나지 않는 끈기와 오기야말로 문제가 있으면 직접 자신이 발로 뛰며 해결해나가는 특유의 집념과 추진력과 결합해 오늘의 풍림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게다.

화장품 제조 수출 / MEDI QUEENS KOREA

현재 풍림은 의료기기 외에도 국제 우수 화장품제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최고 등급인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취득하고 동남아시아를 주 타깃으로 하는 화장품을 자체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다. 동남아 특유의 덥고 습한 날씨를 감안해 소포장으로 화이트닝 제품을 출시한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다년간 해외시장 조사를 하며 얻은 네트워크가 있어 도매상 확보도 비교적 수월했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인이 되었다. 화장품 개발 아이템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正道(正道)경영을 실천하며 해외 바이어와 함께 성장하다보면 글로벌 브랜드로 당당히 위치를 굳히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풍림

조 대표이사는 풍림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잇따른 기술개발과 사업 확장으로 2008년 당시 직원 15명의 매출도 보잘 것 없던 회사가 10여년 사이 매년 20%이상의 성장을 거듭, 최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의료기기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20년도 직원 100여 명에 360억 원 매출을 예상할 정도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증가 등으로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 약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만큼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인데 조 대표이사는 그에 따른 할 일이 많고 지난 40년간 성장해온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한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제조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체에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한다는 조 대표이사의 굳은 의지에서 풍림의 밝은 미래가 오버랩 되기도 한다.

작은 교회를 택한 조용한 신앙생활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톡톡이 인정을 베풀면서도 결코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 대표이사, 이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회사 역시 어려움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 직원 균등히 금일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에서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는 인간중심 경영철학의 진솔한 한 단면을 가감 없이 보게 된다.

주요특허

폴림방지형 개폐 캡 구조를 갖는 일체형 주사기 외 21건

수상

2010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7 중소기업청장 표창

(주)풍림파마텍
군산시 자유무역1길21
T.063)451-8141



고군산군도 최남단 섬
비안도 飛雁島
마지막 초등학생
김경주 양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섬의 지형이 마치 기러기가 나는 모습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비안도(飛雁島). 고군산군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군산에서 35.4km 거리에 1.63Km² 면적을 지닌 이 섬은 주민 감소로 지난 2002년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됨으로써 주민들 의 발이 묶였다. 77년 전인 1943년도 심상보통학교로 설립된 비안도초등학교가 있지만 여객선이 끊긴 후 주민들이 거의 외지로 빠져나간 통에 현재의 학생은 6학년 김경주 양 단 한명 뿐이다.

김경주 양과 김덕신 작가

경주 양은 업사이클링 김덕신 작가의 지도로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를 배워 작년 11월 근대역사박물관 1층 열린갤러리에서의 김 작가 전시회에 참여, 교장선생님을 비롯 많은 관람객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 이 한명의 학생 교육을 위해 교장과 담임교사, 행정실 직원 포함 5~6명이 학교에 상근 중이다. 혹자는 학생 한명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아심을 갖기도 하나 이에서 비록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 교육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우리의 교육정책을 엿볼 수 있거니와 하지만 경주 양이 졸업하는 내년엔 아쉬움 속에 7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가 됨으로써 경주 양이 비안도의 마지막 학생으로 기록될 것이다.



근대역사박물관 열린갤러리 전시회에서의 김경주 양 (맨 우측)



비안도 전경



한때 2백 수십여 가구가 넘던 마을이 현재 80여 가구로 줄면서 어린 아이들도 모두 육지로 나가 학교에 다니다보니 단 하나의 학교마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 것인데 무엇보다 여객선의 발길이 끊긴 것이 섬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마을의 쇠락을 재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주민들은 각자 소형 어선으로 위험한 왕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터라 여객선의 재취항을 바라는 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적자가 났던 그 노선 사업을 아무도 하려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와 시에서 도서주민의 민원을 수렴, 국민권익위 중재로 운항 재개를 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끝에 5억 원(도비2억, 시비3억)을 들여 지난 2019. 12월 18일자 가령도-두리도,비안도 6.4Km 구간을 왕복하는 12t급 여객선(비안두리호) 취항식을 가짐으로써 중단 17년 만에 본격적으로 운항에 들어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관광차 섬을 찾아오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뱃길이 끊겨서인지 사실 섬 안에는 변변한 가게나 식당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자연 경관은 빼어난 편이다. 봄기운을 잔뜩 머금은 산야의 초목들은 저마다 싱그러운 자태로 잎과 꽃을 피워내고 있고, 해발 191m 노비봉을 중심으로 서쪽 해안가의 산책로 따라 철썩이는 파도며 그 파도에 떠밀려 둥구는 갯가지 형태의 자갈들도 예쁘기 그지없다.

학교 옆길을 따라 나지막한 산에 오르면 온갖 식물들이 나그네를 반기는데 쑥과 달래, 머위, 질경이나물 등은 말할 것 없고 동굴레와 봄까치꽃, 현호색, 제비꽃, 벌꽃, 산자고, 금잔화, 방가지뚥꽃, 쇠뜨기를 비롯하여 좀처럼 보기 힘든 우리의 토종 민들레도 만날 수 있다. 봄 햇살 아래 새로운 생명력으로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그 식물들에서 새삼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듯하다. 산의 중턱에서는 광활한 서해바다의 웅기종기 섬들을 비롯하여 날씨가 좋은 날엔 부안의 위도(鰐島)도 시야에 들어오고 멋진 석양에서 심신의 힐링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비안도의 매력으로 다가온다.

다만 현재 운항되고 있는 도선 비안두리호는 정원이 불과 12명(승무원 2명 포함 14명)인 소형 선박인데다가 운항 횟수도 동절기 2회, 하절기 3회 뿐으로서 이는 선착장 접안시설 미비 및 관련 예산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운항 시간 및 요금은 아래와 같다.

동절기(11~2월/하루 2회)

비안도 출발 08:00, 16:00

가력항 출발 08:30, 16:40

하절기(3~10월/하루 3회)

비안도 출발 08:00, 13:40, 18:40

가력항 출발 08:30, 13:40, 18:40

운임 : 편도10,000원(비안도주민 5,000원)

*12세 미만 소인은 50% / 운항소요시간 : 15분



서쪽 해안



선착장



비안도 초등학교



‘장사는 허투루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23년 동안 외길을 걸어 온 ‘365타이어마트’의 강병국(50) 대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유별나게 열정을 보이는 인물이다.

나운 사거리에서 산복동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365타이어마트’는 이십대부터 오십이 된 지금까지 꾸준히 고객들을 만나 온 강 대표의 인생이 담겨 있다.

한 길을 꾸준히 걸어 온 강 대표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불쑥 불쑥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과 우여곡절들은 자영업자로서 힘들었지만,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강 대표는 이 매장에서 타이어 교환, 타이어 부분 정비나 타이어 교체 휠을 도매하는 일을 한다. 1997년 정읍에서 도매를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서 군산에 들어와 소매업을 시작했다.

차와 관련된 일이라면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즐거워서 시작한 일

“평소 관심을 갖고 즐거워했던 일이고, 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는 1997년 정읍에서 타이어와 관련한 도매 일에 뛰어들었다. 군산에 오게 된 것은 2000년대 소매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2000년대 군산에 정착해 현재 나운동 매장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고, 당시 공단을 오고가는 대우, 세아베스틸, 동양화학(구 OCI)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매장을 자주 찾았다.

“일을 하다 보면 매장에 자주 왔던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방문했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의 발걸음이 잦아요. 이 친구들은 주로 튜닝 등을 하러 찾는답니다.”





그는 2004년 튜닝을 통해 '드래그 레이싱'에 참가하기도 했다. 드래그 레이싱이란 자동차 경주 중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빠른 형태의 경주로, 경주별로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코너도 없고 단 몇 초 만에 경기가 끝나는 방식이다. 튜닝이란 기존 차의 엔진이라든지 차체의 외관 등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적인 대회에 나가는 것이다.

가장 값진 “감사합니다” 한 마디

매장의 대소사를 직접 하니 몸은 힘들지만 자주 오는 손님들의 ‘감사합니다’ 한 마디가 그에게 힘을 준다. 매장을 자주 오는 단골손님의 경우 무엇을 고치고 싶은 지, 차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안다. 오랜 시간 일한 경험들과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알아보는 노하우가 차곡 차곡 쌓인 결과다.

현재 강 대표는 아내 구영아 씨와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자 동료인 두 사람은 매장의 대소사를 관리한다.

아내는 매장을 관리하며 주문, 발주 등을 도맡아 하고, 아들 역시 매장 일을 돕고 있다. 강 대표는 아내와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될 사업 파트너”라며 “미우나 고우나 감사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둘째 딸은 광주에서 학업을 이어 가고 있다.



잘 해왔고, 잘 될 거예요

“내 사업을 하다보면 하루아침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꾸준히 매장을 운영하며 주인이 바뀌고 가게 문을 닫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경장점, 김제점 등 매장을 확장할 때마다 끈기로 버텼죠. 마음이 힘들 땐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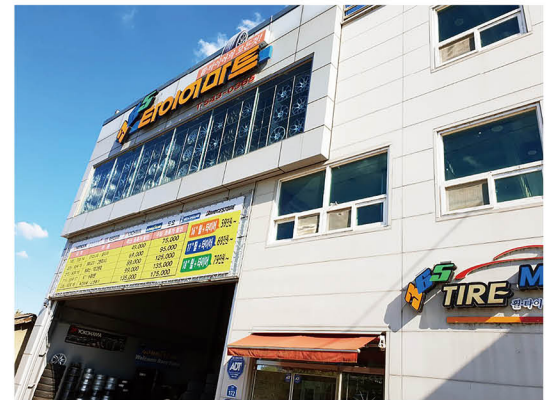
강 대표는 가족이자 사업 동반자인 아내와 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도 그의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이들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많은 생각이 들 땐 ‘그래도 너 정도니까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칭찬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거예요.”

그는 힘든 상황이지만 버티겠다고 했다. 매장 이름인 ‘365 타이어마트’처럼 1년 365일 묵묵히 버티며 열심히 일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사업을 확장시키기보단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65 타이어마트
군산시 나운동 808-11
063-468-4420

(경장점) 군산시 경장동 514-26
063-452-9009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 책 출간한

송한나 작가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언제부턴가 식물 재배는 우리 일상이 되었다. 식물이 주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각 가정마다 적게는 화분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베란다를 가득 채울 정도의 온갖 화초를 기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화초의 선별에서부터 특성을 이해하고 잘 가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물 가꾸기 관련 책을 출간한 송한나 작가를 만나보았다. 제목은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다. 송 작가는 화초 재배와 관련하여 축적했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화초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유산을 겪고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태교를 고민하다가 가드닝, 화초 기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유는 뱃속의 태아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제 스스로 변화한 것이지요.

제 어렸을 적을 떠올리면 6~7살 무렵부터 식물과 함께 생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끝내고 밤부터 새벽까지 엄마 혼자서 베란다에서 화분을 둘러보며 물주고 분갈이하고 위치도 바꿔주면서 청소까지 했음에도 제 눈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으니 스스로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 집, 나만의 공간 베란다가 생겼지만 텅 빈 그 공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화초 기르기였는데, 사람일은 모른다더니 이제는 엄마가 저희 집에만 오시면 화분 좀 그만 사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이건 뭐니? 참 예쁘다' 하시며 몇 개 가져가시곤 한답니다. (웃음)

본래 화초를 전공하신 건 아니시군요.

저는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했고 식물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 기간 경험을 통해 터득함으로써 노하우가 쌓인 것이지요. 사실 가드닝 6년차 초반에는 뭇도 모른 채 화초를 많이 들여놓았던 만큼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인 것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죽어서 빈 화분이 쌓여가는 만큼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죽을 것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새순이 나올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는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제거를 비롯하여 프롬알데히드, 암모니아 등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라 말하지만 저는 힐링(Healing)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식물, 초록이 주는 안정감은 실로 대단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조용히 제 할 일을 다 하지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며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에게 바로 신호를 보내오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처럼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향해 줍니다. 유명한 문구도 있지요. '외로우면 식물을 키워라, 식물은 사랑을 준만큼 보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선호하는 식물의 종류, 특성 및 관리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꽃이 핌으로서 예쁜 식물일거라 생각하지만 넌센스입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별레가 잘 생기고 관리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고나면 관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손이 덜 가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선호하는 식물을 보면 선인장,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산세베리아, 아이비 등의 관엽 식물 등인데 '며칠에 한 번 물 주세요, 햇빛을 안 봐도 잘 자라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식물은 각자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 햇빛에 잎이 타는 식물도 있으니까요. 식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 관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만큼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식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관심이지요.

또 하나, 제 주관은 사계가 뚜렷한 식물이 힐링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년 내내 푸른 관엽 식물도 좋지만 계절마다의 특색을 보여주는 식물을 선호하는 편으로서 그런 식물로 조팝나무와 소사나무를 좋아합니다. 봄에는 귀여운 새순을, 여름에는 예쁜 꽃을, 가을에는 빨간 단풍을, 겨울에는 앙상하지만 스산한 멋스러움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목은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 이고 도서출판 '책밥'에서 지난 3월 출간했는데 반려식물 초심자를 위한 304페이지 분량 실용적 홈가드닝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출간 동기는 평소 SNS에 베란다 식물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것을 본 출판사에서 책 집필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둘째를 낳은 지 채 100일이 안된 시점이어서 거절했더니 시간이 지나 재차 제의가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 화초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혼자만의 취미활동이 외로웠던 때라 내가 책을 내어 많은 사람들이 식물에 대해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자극이 되어 긴장 반 설렘 반의 심경으로 제의에 응한 것입니다.

현재 하시는 활동, 그리고 식물 애호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책 출간 후 가드닝클래스나 TV출연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취미는 취미로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취미를 일로 시작하려니 자칫 그 본질을 잃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해서요. 지금은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며 평소 관심 분야의 취업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반려동물은 익숙하고 친숙한 반면에 반려식물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식물을 키우게 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과 맞는 식물이 뭔지 찾게 됩니다.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하고픈 반려자로서의 식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식물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니까요.





30년 수산업 외길 노평호 서진수산 대표

어촌에서 태어났으니 어촌에서 살리라
어렵고 힘든 어민들 도우며 살아갈 터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노평호 대표



빈 박스를 옮기기도 한다.



직원들과 함께 냉동작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깁깁하면 몬산다”

매일 바다를 보아서일까, 그는 바다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사업체인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 건물 사방이 탁 트였으니 그럴만했다.

어항, 작업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다를 한 번 보고 하루의 시작한다고 했다. 수더분한 그의 입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 나오다니 뜻밖이었다.

군산중과 군산고, 그리고 군산수산전문대학을 졸업한 노평호 대표. 30년 넘게 수산업 외길을 걸어 온 그의 태어난 고향이 경남 삼천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6학년을 마치고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자 군산의 신평동 말랭이 판잣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친척이 운영하였던 신성디젤이라는 철공소를 큰 형님이 맡았던 게 여기에 정착하게 된 계기였지요.”

그는 서해안에 생성된 고등어와 오징어 어장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의 그를 성장하게 이끌어 준 ‘자란 고향’ 군산 땅에서 수산전문기업을 일으켰다. 비응도에 반듯하게 들어 선 서진수산(주), 비응냉동냉장(주), 서진정수(주)가 바로 그 곳이다.

국내 생산량 50~60%의 고등어, 30~40% 정도의 오징어가 서해안 어장에서 나오는데 비응도에서 선망업 수산물 가공과 냉동 냉장업,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체를 만들었으니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젊었을 때 ‘장돌뱅이’처럼 전국을 돌며 수산물 사업에만 매달렸던 그가 ‘길러준 군산’으로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다. 바닷바람에 시달린 흔적이 반쯤 정도만 섞인 풋풋한 인상이지만 벌써 욕심이다.



비응항에서 노평호 대표



비응항에서 고등어 작업



‘어촌에서 태어났으니 어촌에서 살리라’는 좌우명의 실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냉동냉장 공장을 지으면서 자금난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야만 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순간을 이겨내야 했기에 때론 ‘강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담대한 표정 안에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자존심이 가득했다. 너무나 치열했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주변과 함께 살려고 한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뤄진 한·중 해운협정으로 130여척이나 되었던 군산의 안강망이 감척되었다. 그 이후 군산경제의 한축이었던 수산업이 붕괴되었는데 노 대표는 이 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꿈을 꾸다.

“수산업 쪽에는 제가 가진 ‘인적 인프라’가 꽤 되거든요. 전국을 돌며 도움을 주고받던 사람들과 오랜 기간 쌓여진 인연이지요. 군산에 수산물 관련 인프라를 만들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지요.”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평호 대표



어민들과 비응항 발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노평호 대표



서해안 고등어를 비응항으로 들여와 소득을 올리는 서진수산

바다와 함께 살아 온 노평호는 술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시련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였으며, 그는 본격적으로 수산물 가공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제대를 한 1989년 군산에 일자리가 없어 삼천포에 내려가 부도직전의 한려제빙에 들어갔다. 꼴찌에서 맴돌던 회사를 선두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사업 수완을 인정받았다.

“미친 듯이 일했지요. 얼음을 파는 게 가장 마진이 좋았는데, 그걸 팔기 위해서는 선장들과의 유대가 중요했거든요. 밤에 고기를 푸고 낮에는 선장이 집에 갈 때면 잠도 못자고 직접 운전하면서 모셔다 주었어요. 잠도 못 잤지만 인간적인 유대로 묶여졌지요.”

티에스우인의 삼천포 소장 당시 우리나라 최대(하루 처리량 1만 2,000상자)의 냉동 공장 신축 과 부산사무소에서 국내 최초로 6척으로 구성된 선망(고등어배)을 임대하고 연간 1천억대의 거래 실적을 올렸지만 갈증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1997년에 선망업체 신성수산을 거쳐 봉수망(공치잡이) 원양 어선업 대복수산을 창업했으나 3년만에 실패로 끝났다. 다시 삼천포로 돌아가 냉동공장에서 다시 일하던 어느 날 수협 경매장에 나갔는데, 업계 선배가 “야, 니 장돌뱅이도만...”하는 말이 단초가 되어 오늘의 그가 만들어졌다.

오징어잡이 트롤어선의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신진도로 들어가 고기를 하역하려 컨 베어 벨트를 빌리려는데 모두 고개를 가로챘는 거였다. 한 업자가 ‘어디 배냐?’고 물어 ‘삼천포 배’라고 하니 ‘노평호 사장 아느냐’라는 거였다. ‘잘 아는 후배’라고 하자 그 때서야 장비를 빌려주었다는 말이 계기였다.





2005년에 신진도의 냉동 공장을 인수하여 남부럽지 않던 2009년 그는 운명처럼 그는 향수 병 비슷하게 외로움을 탔다. 마흔아홉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다시 시작했지만 바닷바람은 그냥 잔잔히 불어오는 게 아니었다. 신진도에서 사업을 할 때 함께했던 분에게 4,800평의 공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물려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군산 비응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의 무일푼이었다.

“비응도에 공장을 지을 때 대금을 제 때 주지 못해서 사기꾼 소리도 들었고 냉동차와 지게차 사이에 머리가 끼어 죽을 고비도 넘겼지요. 물건 살 돈도 없어서 험한 꼴도 당하고 힘들었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지요. 지금은 가장 돈을 잘 주는 업체하면 우리 회사를 꼽지 않을까요?”

객지로 돌던 노 대표가 군산에 온지 11년이 지났다. 비응도에 냉동 90톤(하루 처리능력 4,500박스)과 냉장 3천톤 규모의 냉동냉장 공장과 다른 사업체들도 자리를 잡았다. 이젠 사는 날까지 군산과 함께하려고 마음먹었다.

고등어와 오징어로 특화된 가공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당'으로 고용하고 있다. 잔돈 벌이라고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수산업계에는 그렇게 먹고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군산의 수산업 한켠에서 뿌리를 내렸으니 나를 길러준 군산에 대해 어느 정도 신세는 갚은 셈이지 않을까요?”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는 그의 얼굴에서 군산 수산업의 부흥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주)서진수산(주)비응냉동냉장(주)서진정수
대표이사 노평호
군산시 비응6길 23
063-468-4460

오늘날 서해안의 오징어와 고등어 선망 작업을 개척한 당사자가 노평호 대표라는 건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 날 이후 그의 서해안 시대가 펼쳐졌으니 말이다.

“저는 당시 서해안에는 300톤급 큰 배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안에서 큰 배로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자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곧바로 신진도로 올라가서 보니 해경의 500톤급 배가 항구에 드나드는 것이었어요.”

‘아, 이 정도면 서해안에서 작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삼천포를 정리하고 신진도로 올라갔다.

냉동 시설이 낡아 동중국해로 나가지 못하는 오징어잡이 12척이 근해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배들을 불러 들였다. 시쳇말로 ‘아다리’가 났다.

얼음을 채워서 가공공장에 보내는 일이었는데 오징어 가격이 잘 나가서인지 하루에 8천만원을 벌 때도 있었다. 고등어가 날 때는 길바닥에 산더미처럼 깔아놓고 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서울 등으로 보냈다.



노평호 대표의 사업장 전경



아로마 테라피로 체험하는 심신의 힐링 천연공방 ‘Warm Scent’

고우경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수송동 소재 웜센트(Warm Scent/따뜻한 향기)에 들어서면 실내에 가득한 기분 좋은 향기가 방문객을 맞는다. 이곳은 아로마캔들, 아로마향초, 아로마비누, 헤나 등의 체험공방이자 강의장으로서는 다녀간 고객들의 입소문도 큰 홍보가 되는 곳이다. 조용한 성품에 온화한 미소가 일품인 고우경 대표는 아직 20대 중반으로서 군산중앙여고를 거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피부미용관리학과 2년, 미용피부테라피학과 전공심화 2년 등 4년을 전공한 그 분야의 재원이다.

고 대표는 고교 재학시절 프리미엄샬롱 세종 군산점에서 3개월 실습에 참여할 정도로 미용에 대해 관심이 컸고 자질이 있었던 터라 일찍이 미용사자격증도 취득했다. 대학 입학 후에는 피부미용전공동아리에 들어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그라미재활원, 원광상록원 등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얼굴관리 및 발 관리 봉사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인 ‘대한민국 피부, 모발 지도’ 연구보조원으로 10~60대 남녀 피부/모발상태측정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기 공히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던 시기였다.





대학 1학년 때 한국메이크업협회 주최 제11회 전국메이크업경진대회 뷰티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참가 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녀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세미나를 수료하고, 스승의 행사 일환으로 교직원 대상 발 관리를 비롯하여 '고교생 직업체험' 피부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분야다 보니 이러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공부가 되는 점도 많았고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KASF주최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 스웨디쉬 마사지 얼굴관리 부분에서다. 이 상은 이후 수상하게 되는 많은 상의 서곡이기도 한데 이를 계기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그해 9월 tvN 대국민 창작(創職)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프로그램에 출연, 실버 테라피스트 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녀의 기량은 일취월장했고 2013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 발 관리 부문 대상에 연이어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창작동아리부문 헬스&뷰티 매니저 대상도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후 대학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펼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대한민국 피부, 모발지도' 참여 기관 연구보조원, 세계적인 전문대학 WCC21 교육성과 박람회 참가, KASF 주최 2014 미용기능경기대회 금상 등의 성적을 거두면서 더욱 성취감과 자신감이 북돋게 되는데 2014년도 9월부터 약 2년간 ㈜약손명가에서 근무하면서는 골기교육 아카데미 3급을 수료하고 실기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장상 수상과 더불어 이후 BLB 밸런스핏체형관리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녀가 지금의 워센터를 개업한 것은 2018년도 1월이다.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증 매장으로서는 아로마 향초(Candle)공예와 석고방향제, 디퓨저, 비누 방향제를 비롯하여 헤나 두피 트리트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천연제품 공방 워센트는 고 대표가 평소 구상하던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특화하여 개인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워센트의 아로마향초와 석고방향제, 비누들은 고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형색색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그만일 뿐만 아니라 악취제거, 심신안정 등의 방향효과가 뛰어나 선물용으로도 선호되고 있다. 또한 녹차잎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물질 헤나 염색은 손상된 모공을 재생시키고 아울러 자연스런 색상을 발현하는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한번 사용해본 사람은 주위에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점증하는 추세다.

공방 안의 강의실에서는 가족단위 공예 체험도 이뤄진다. 진열된 갖가지 형태의 캔들이며 석고 방향제, 비누 등은 미술공예품이라 할 정도로 멋지고 예뻐 단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힐링을 준다. 현재 워센트의 주 고객 연령층은 20~30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간혹 50대 이상의 엄마들도 방문한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은 고 대표의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만들기 체험을 시도해 보는데 방법을 익히면서 제품이 완성되어가는 동안 얼마나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그러다보니 고 대표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외부 출강 제의도 많이 받고 있다. 창업 이래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군산시보건소, 군산행복학습센터(군산시청), 군산여성사회대학, 찾아가는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동네문화카페 등에서의 강의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된 그녀는 향후 인근 메이크업 전문업소인 웨딩폼(원장 전진희)과 협업으로 고객들의 개성에 따라 머리에서부터 화장, 피부, 눈썹 등 미용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케어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심신의 힐링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소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예쁜 미소를 보인다.

워센트(Warm Scent)
군산시 수송안11길2 보리빌401호
010-6274-8157



마음은 청춘, 군산노인회 새출발

이래범 전 시의장 제17대 군산노인회장 당선
일자리가 많은 '당당한 노인회' 만들 터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인생 100세 시대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한 노인회군산시지회(이하 군산노인회)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4월1일 제17대 군산노인회 장으로 취임식을 가진 이래범 전 시의회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2대와 3대, 4대, 5대 등 4선 시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였던 이래범 전 시의장. 그는 지역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뜻을 품었다. 의정회 출신 최초로 노인회를 맡아 걱정도 많다.

신·구의 조화는 어느 시대이든 중요한 덕목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덕목이다. 지역 노인회의 문턱이 지방의회 출신에게 문을 허락하였으니 작은 변화가 예견된다.

어쨌든 경로세대들엔 행복이다. 가깝게 민원을 대하던 지역 리더가 노인회를 4년 동안 이끌게 되었으니 민간이 주도하는 군산노인회 시대가 열린 셈이다.



취임 선서하는 이래범 회장



취임 선서



분회장 간담회

군산노인회는 26개 분회를 두고 있으며 514개 경로당이 있으며, 2만767명의 할아버지와 2만7,279명의 할머니 등 모두 4만8,046명이 회원이다.

군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올해 전체 7,212명이 배정된 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의 2,146명에 이어 군산노인회가 1,85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9년의 5,999명 대상자 중 1,195명을 배정받는데 그쳤지만 올해엔 무려 657명이나 늘었다. 반면 시니어클럽은 오히려 19명이 줄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선두기관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노인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부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행복나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여 왔다.

이래범 회장은 의정회 출신 최초로 노인회를 맡아 걱정도 많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경로세대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경로세대라고 ‘에헴’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강한 노인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은 기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당당한 군산 노인회’라고 슬로건을 걸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회장 간담회



시장장 재임시 자매도시 김천시 방문



이래범 전의장의 사회활동



당선증을 받고 나서 황궁택 직전 회장과 함께

군산시 전체 인구의 18% 정도로 인구가 많으니 거기에 따라 책임도 막중하다. 지역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경로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인 회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할 때이다.

이 회장은 노인회가 걸치려 행사에 머물고 있는 데 갈증을 느꼈다.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원로로서 지역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로효친 사상을 후세들과 함께 만들어가려면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술선수범해야지 않겠어요?”

실제로 지난 1일 예정된 취임식을 생략하고 분회장들과 간담회로 의식 행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행사비를 아끼고 이 지역 514개 경로당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코로나19로 아픔을 받는 65세 이상 경로세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추진 중이다.

노인들의 삶이 행복해 지려면 돈도 물론 벌어야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래범 제17대 군산노인회장



이래범 전의장



건강보험 명예 이사장 활동



장애인 위로 격려

“일자리는 치매 예방은 물론 노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트타임제’를 전북 최초로 시도하기로 하고 관련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파트타임제 구상은 지금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현장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음식 숙박업, 사회 단체 등등에 연계하려는 계획이다. 짧은 근무라 하더라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은퇴 이후 시간이 자유로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경로세대들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성실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리라고 믿지요.”

이 회장이 추진하는 일들은 오늘의 경로세대들이 지나온 발자국을 후세들에게 예쁘게 새겨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노인회가 먼저 회원들에게 정신교육 등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된다.

시의장 출신으로 군산노인회를 새롭게 출범시킨 만큼 그동안의 작은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 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래범 회장. 그는 어느 때보다 노인회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후세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회장에게서 군산 사회의 따뜻한 봄날을 느낀다.

대한노인회군산시지회
군산시 오룡재길 26-17
(063)463-0931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시의장으로서 사회활동



코로나19 관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군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 한지도 60여 일이 지났다.

군산시는 8번째 확진자 A(62·여)가 도내에서 첫 번째로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군산 시민들에게 더이상 확진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GPS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며 역학조사를 벌이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접촉자들을 찾아 검체를 의뢰하고 자가격리와 능동감시하고 방문장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수많은 일들을 진행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동선과 일치하는 일반인들의 불안과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위해 코로나19 대응 24시간 비상방역콜센터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밤새도록 전화 상담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명, 수 백명이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답답함을 참아 내며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4일 현재 군산에는 지금까지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고 2명이 군산의료원에 격리돼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금까지 이 5명의 확진자에 대한 206명의 접촉자와 능동감시를 실시했으며 이 중 20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진행 중이고 186명이 자가격리 해제됐다.

또 코로나19로 1,271명에 대한 검체의뢰를 실시해 5명이 양성확진 판정을 받은 것 외에 1,243명이 음성확진 판정을 받았고 23명이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3개반 7명의 방역전담반을 운영해 매일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군산의료원 외곽 및 응급실, 복지시설, 신천지 관련 장소 등 다양한 곳에 대한 방역소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에서 온 확진환자들이 입원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군산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나긴 싸움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일선의 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이 싸움에서 깊어가는 피로와 지쳐가는 체력 속에서도 오직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보건소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해가고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 및 직원 인터뷰>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이 많았고 감염의 원인이 확실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발생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며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어느 시점이 지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은 군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장기

화 되면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 속에서 피로가 증가하고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본연의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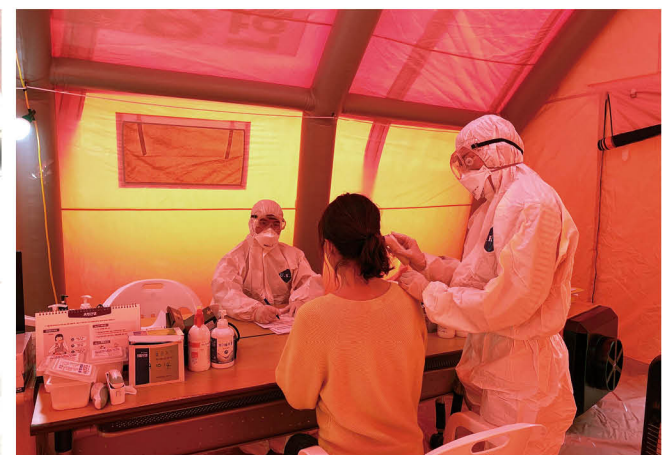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차로 확진자의 진술로 동선을 정하고 2차로 GPS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2차로 동선을 확정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게되는데 이를 철저히 하다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진술과 역학조사관계가 달라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간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속에 일명'~카더라 통신'이나 '가짜뉴스'를 믿고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는 말을 들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곤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시민여러분께서는 시에서 발표 하면 믿음을 가지고 따라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실 과장 :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다 자발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감정노동을 하루 12시간이 넘게해서 지치기도 할텐데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감염병 관리계장 :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깨끗한 군산, 안전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은 직원 : 첫 부임지로 보건소에 와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상담자와 1시간 넘게 통화도 해보고 하루 4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선배님들을 보며 좋은 모습을 닮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송원길 청원경찰 :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이곳 보건소에 파견근무를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솔직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열심히 근무하는 보건소직원들을 보면 힘들다는 말 하기가 미안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됩니다.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퀸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한 곡 틀어봐!

때아닌 매서운 바람과 함께 장맛비처럼 굵은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신사 손님이 카페에 다시 오셨습니다. 음악실에 있던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 몇 곡 들어보고 주문할 거야?”

주문을 받으러 간 직원에게 역시 딱딱하고 거친 말투로 말하셨습니다. 그 거슬리는 목소리가 음악실에 있는 저에게까지 확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노신사 손님의 태도에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분의 감성을 동계 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곡한 음악이 Peggy Lee(페기 리)의 <자니 기타(Johnny Guitar)>였습니다. 지난번에 노신사 손님이 신청하신 <그링고스 기타(Gringo's Guitar)>를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음악실의 옆면 유리창을 통해 노신사 손님을 훑쳐 보았습니다. 그분은 페기 리(Peggy Lee)의 노래를 듣는 동안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중간쯤 흘렀을 때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침은 노래가 다 끝날 때 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오래된 천식 환자의 기침과도 같았습니다. 그 뒤로 몇 곡의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도 기침은 멈추는가 싶다가도 다시 심하게 나오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노신사 손님이 눈부신 청춘의 날에 들으셨을 것으로 짐작되는 음악 몇 곡을 진지하게 선곡했습니다. 왠지 모를 연민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노신사 손님에 대한 낯설지 않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묘한 감정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감정은 노신사 손님이 저를 불러 제가 그곳으로 갈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르신, 그간 안녕하십니까?”
“아아!”

노신사의 앞쪽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제게 짧고도 거친, 흡사 명령과도 같이 말하셨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그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바로 그때 노신사의 눈에 아른거리는 액체를 보았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한 탓인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그르렁그르렁 하는 소리가 확연하게 들려왔습니다.

“뭐 한 잔 마셔!”

뜻밖에도 노신사는 제게 마실 것을 권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잔말 말고 마시라면 마셔!”

호통 치듯 거칠고 투박한 소리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신사의 다음 말에 저는 가슴이 확 막혀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폐에 물이 찼대. 폐암이라네.”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는 듯 무덤덤하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신사 손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떨렸습니다.

격렬한 기침은 쉼없이 계속되는 소리를 번갈아 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 노신사의 기침은 금방이라도 손가락 틈으로 각혈이 될 것만 같은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추차 좋네. 몸에 좋은 대추차 한 잔씩 하자.”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던 기침이 잦아들자 노신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노신사 손님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로 노신사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쪽이었고 저는 듣는 쪽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다녔던 서울 종로 일대의 음악다방과 음악감상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신사 손님이 우리 카페에 오지게 된 것도 카페 밖에 걸린 스피커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옛 생각이 나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의 음악다방은 다 폐고 있는 듯 줄줄 나열하면서 그 음악다방 각각의 특징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다행히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좋아하는 일에 신명 나서 말하는 것처럼 노신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음악을 상당히 깊이 있으면서도 다양하게 듣고 좋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분에 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폐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가족들은 있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등의 신상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한 곡 틀어봐!”

마치 제 속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느닷없이 음악을 신청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또다시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토해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새가 날면 새가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알곳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어르신 닻은 어딘가요?”

노신사의 신청곡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까운데 살어.”
“가족분들은…….”
“혼자 살어”
“아…….”
“할마이는 삼 년 전에 먼저 갔어.”
“아… 그럼, 자녀들은…….”
“자식? 남매 뒀는데 아들놈은 지 엄마보다 먼저 가버렸어. 자식 죽고 할마이도 시름시름하더니 가버렸지.”
“아…….”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어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

쓸쓸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신사 손님의 표정에는 짙은 비애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나저나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쩔 거야?”

다시 투박하고도 거친 말투로 나무라듯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노신사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제가 마신 차값까지 계산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에 없던 조급함으로 노신사의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 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위기의 군산경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는 동안 군산의 지역경제는 건잡을 수 없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OCI 군산공장이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러한 위기의 군산경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OCI 군산공장은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 규모가 약 1,100여명에 달해 가까스로 안정 되던 지역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현재 OCI 군산공장의 협력사는 15곳 정도로 종사자는 35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OCI 군산공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가동을 멈췄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제가격이 급락해 적자 폭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군산에선 2년 전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3년째 휴업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7만여 명에 이르던 연관 가족들이 IMF 때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또 연간 생산액이 2011년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군산 총 생산액의 68%를 차지하던 두 회사가 멈추면서 지역 경제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다행히 2018년 4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이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발행액 4,800억 원에 이르는 군산사랑상품권 등의 덕분에 지역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나던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이어 도내 4번째로 큰 기업인 OCI 군산공장의 위기로 군산경제가 다시 벙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OCI 군산공장 외에도 타타대우 자동차마저 내수시장의 판매부진 등으로 머지않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여기에 기아특수강마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 군산지역 산업을 이끄는

주요 산업군이 경영위기로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산업위기는 실업화와 인구유출, 소비감소 등을 불러왔다. 군산인구는 지난해 대비 2,000여명 가량이 감소해 아파트, 원룸 등 가격이 폭락하고 소규모 점포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군산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사태 속에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느라 바쁜 와중이라 하지만 군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군산시의회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임시회를 가졌지만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도의회 역시 지난달 20일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단 한차례 냈을 뿐이다.

4월 총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조차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후보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상황 속에서 산업고용위기 상황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셈이다. 사상 유례없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장 직속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대안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항시 기업동향 분석과 실직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군산시의회 의원
이 복

누가 사이비인가

사이비(似而非)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옳바르고 비슷한 것 같으나 속은 전혀 다른 것'이다. 코로나 19사태에서 사이비 기독교의 정체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실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가장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거짓 종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이비 기독교는 무엇인가, 역시 기독교를 가장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교주를 비롯한 몇 사람의 간부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종교의 자유를 100% 허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사이비가 더 쉽게 만들어지고 번성하게 된다.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독교로 위장하여 사회에 패악을 끼치게 된다.

집단예배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부탁에도 일부 교회들이 여전히 모여서 집단예배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뵙고 최선의 예를 갖추는 의식이다. 이를테면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서 인사를 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식사하며 사랑 넘치는

교제를 하고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되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성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 때문에 자녀는 물론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모님은 굳이 자식들을 불러 모으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이 들고 올 용돈이나 선물을 받지 못할까 봐서 자식들을 억지로 불러모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오지 않았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파내는 부모 역시 없을 것이다.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목사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주일예배 한두 번 쉬었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다.

십일조는 요단강을 건넌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열두 지파에 각각 기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중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먹고살도록 했는데, 기업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 열 한 지파가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서 얻은 수입의 1/10일을 내게 하였는데 그것이 십일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밭에 심은 채소 숫자까지 계산해서 십일조를 내었다. 일반인이 내는 십일조 중에서 봉사자들에게, 그것을 받은 봉사자들이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은 또 받은 그것의 십일조를 대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십일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도 운영자금에 필요하다. 성도들이 낸 십일조를 가지고 운영

상의 비용들로 사용하고 목사의 생활비도 주어야 한다. 목사에게 주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생활비가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씩 드는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내는 십일조의 십일조는 노회에, 노회에서 걷은 그 십일조는 총회에 내게 되어서 각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남는 돈이 없어야 한다. 남는 돈은 구제 사업 등,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월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목사들은 심히 불편해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바란다. 왜, 교회에서 돈을 모아 여기저기에 땅을 사놓는가, 왜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는가?

무엇을 하든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돈 벌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이비일 뿐이다. 돈 벌기 위한 목회,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학교, 공직자…

누가 정통인가, 누가 사이비인가, 사이비가 또 다른 사이비를 심판하는 세상, 당신은 정통인가?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작은 노력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세계적으로 85만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4만2천여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언제 이 위기에서 탈출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9천7백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유입 법정 감염병 1~3급 신고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에는 500건 대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686건을 기록했다. 2019년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홍역에 걸린 환자만 무려 86명이고 특히 Dengue,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 열대 혹은 아열대성 질병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해당 감염병은 동남아 국가와 중국 남부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종종 이름조차 생소한 감염병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지역 등에서 감염병이 만연한 원인을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자연 개발에서 찾고 있다. 기온 상승이 세균 등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자연 개발로 인해 바이러스 숙주인 야생 동물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된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같이 박쥐에서 발원한 것으로 확인돼 동물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요리하면서 동물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 질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렇듯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전 세계 인구가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멀다고 느끼는 기후변화가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의 상관관계

위 글에서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감염병 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고 하고 있다. 한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인류가 지구를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량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주장과 인류가 이전에도 지구에는 빙하기와 온난화가 있었고 태양과 지구의 변화에 따른 자연현상(과학의 불확실성과 과장된 지구 온난화)이라는 주장이 나뉘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과 화산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 등 지표조사를 통한 과학적 접근을 통한 '교토의정서'¹⁾ 같은 자정노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간협약과 강제를 차치해 두고, 나 스스로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하루에 사용하는 일회용품 줄여 쓰고자 노력하는 것,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작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온 세상에 확산되어야 할 운동이다.

1)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는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로, 유엔(UN)에 의해 발의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7년 12월 11일에 채택되었으며, 협약서에는 184개국 대표자들이 서명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배출량 감축 시간표를 작성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상에 판타지를 부여하는 뉴페인팅 '아트테리토리'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야외 전시회인 아트테리토리에서 "일상에 판타지를 부여하는 뉴페인팅"주제로 작가 쑤지의 작품이 소개된다.

쑤지(Soon Ji) 작가는 미국뉴욕소재 비주얼아트대학 미술전공으로 졸업하였고, 미국과 한국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시전등을 열어 큰 호평을 받아 여러 수상작 및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작품 뉴페인팅은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던 새로운 유형의 구상회화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중 영미권에 사용된다. 대개 인간 형상을 주제로 삼고, 다소 거칠고 투박한 필치, 원색을 사용하는 표현주의적 특성을 선보이는데, 작가 쑤지의 뉴페인팅은 자유롭고 표현주의적 회화의 특성을 살리고, 잔잔한 일상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새로운 형식은 형광 물질을 '또 다른 물감'으로 도입하는 창작에서의 방식과 '일반 조명이 아닌 특수 조명'을 사용하는 전시에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형광과 일반 물감을 섞어 캔버스 위에 그린 회화는 어두운 공간에서 자외선을 투사하는 방식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회화와는 다른 조건과 상황을 느낄 수 있으며, 낮설고 하지만 환상적인 화면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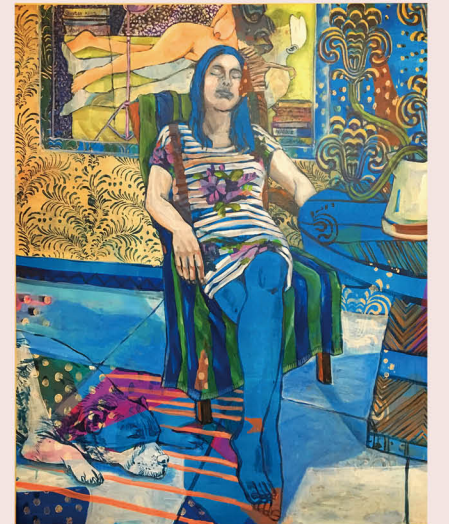
작품 전시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0일 까지이며,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에서 24시간 관람이 가능하다.

군산개복단편영화제 '24초 영화공모전' 준비

2020년 군산시민예술촌이 야심차게 준비한 군산개복단편영화제가 5월30일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열린다. 4월1일부터 5월16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본인이 결정한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주제는 '당신의 하루가 한편의 영화가 됩니다'로 하루의 모든 일상이 작품주제가 되고, 추억속의 핸드폰 영상도 작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일반부와 청소년부(만18세까지) 참여 가능하고, 당선작은 상금과 상장 트로피까지 주어진다. 군산의 영화의거리에서 펼쳐질 군산개복단편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쑤지, Life Is Art, 90.9 × 72.7 cm, Oil on canvas, 2016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우리들의 열정은 원동력, 이성은 방향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청년 사회혁신 인큐베이터 - 길위의청년학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돕기도 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며, 환경을 위한 사회 운동체를 꾸리기도 하는 등 나름의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2년 동안의 청년혁신가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청년 사회혁신가로 성장하여 NGO, 비영리단체 등 본인이 꿈꾸는 형태로 독립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길 위의 청년 학교". 몇 년 전부터 청소년자치연구소는 "길 위의 청년 학교", "청년의 꿈 과외 수업"과 같은 청년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청년혁신가들을 배출해낼 예정이다. 앞서 진행되었던 "길 위의 청년 학교" 초창기 활동가와의 만남,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혁신가지원위원회의 자문, 지원을 얻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활동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더 불어 모금, 홍보, 글쓰기, 영상 등의 '교육 훈련과정'을 거쳐 혁신가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 및 가치관을 함양하고 '달그락 지구 마을 프로젝트'로 네팔을 방문하여 지구촌 내 해외 조직화, 지역개발활동을 학습하며 직접 경험해 볼 것이다. 추후엔 활동 중 수시로 기록한 활동 내용을 취합 후 출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채워질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터 사무실이 확정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공간의 컨셉을 정하고, 그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시장조사하며 현재는 최종 물품 리스트 작성 후 지원받을 만한 물품을 찾고 있다. 4월 돌



째주 정도엔 공간이 완성된다. 이 공간은 2년 동안 다양한 조직화 활동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지난 주 토요일 모임 날, 앞으로 함께하게 될 청년혁신가 동료들과 인큐베이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4년 전부터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자원활동가, 단기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했으며, 뜻을 가지고 사회 혁신을 이뤄보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다는 전예빈 청년과 구자민 청년. 달그락의 청소년으로 열심히 자치활동을 하며 대학 진학과 동시에 모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다는 건우 청년과 소현 청년. 고향인 경주를 떠나 꿈꾸는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에 전문성과 행동력을 기르고 싶어 함께하게 된 예은 활동가. 이렇게 5명의 청년이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

"변화는 천국 같으면서도 재앙 같은 일. 아직 묻혀있는 별, 가까운 것과 먼 것 사이에서 진동하는 별" 레베카 솔닛의 길 잃기 안내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변화와 도전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에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우리 모두 지금이 변화와 도전의 적기라며 자신을 믿고 행했다는 것. 용기 있는 행동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용감하고도 대견한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긴다. 지금의 선택을 믿고 어떤 결과가 되었든 후회가 없는 모험이 될 것이다. 원동력인 열정을 잘 다듬고, 이성을 채워가며 각자가 꿈꾸는 방향에 맞춰 나야 할 것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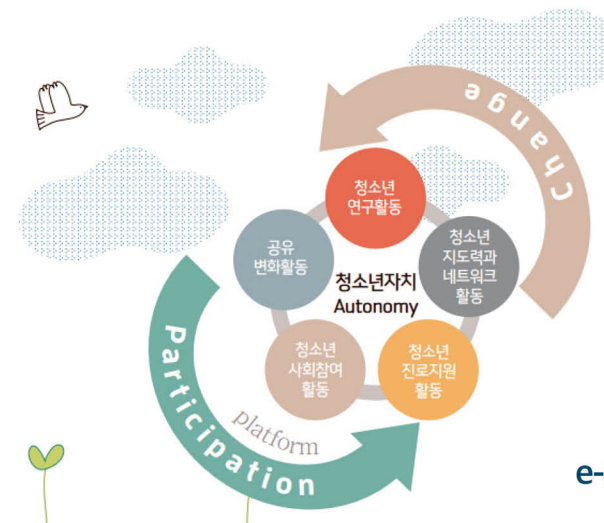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새로운 세상을
들꽃 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 군산시, 일명 '민식이법' 교통안전사업 착수

올 추경 9억900만원 확보 20군데 사업 추진
스쿨존 사고 처벌 대폭 강화, 운전 주의 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되어 교통단속과 함께 처벌이 대폭강화 된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 예방 시설이 확충되면 어린이들은 조금이나마 안전이 확보되지만 운전자들은 그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신호위반과 과속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1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국비 등 모두 9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선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등 20개소에 대하여 신호등과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 사업은 전복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한편 계속하여 국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 시설 설치에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적용연령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미끄럼방지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처벌내용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배(8만원)로 오르고, 규정속도(30km)를 10km~20km넘으면 벌금도 2배(6만원), 벌점(15점)을 받는다.



■ 군산시의회, 코로나19 성금 기탁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사용해 달라며 64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김경구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전제위원이 코로나19 극복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

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SNS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 '군산짬뽕', '뽕사뽕까' 판로 확대

NH무역 통해 수출길 올라
인터넷판매 등 판매 경로 개척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지정된 '군산짬뽕라면'과 부셔먹는 라면 스낵인 '뽕사뽕까'가 수출 길에 오른다. 군산짬뽕라면과 부셔먹는 스낵 뽕사뽕까는 농협 최초로 만든 라면과 라면스낵이며,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환삼살보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1월 14일 출시부터 13만개가 완판되고 출시된지 약 2달이 지난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30만개가 넘게 팔려 판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두 상품은 인터넷 판매(www.nonghyupmall.com) 개시 및 농협 하나로유통 계약 판매, 이마트, GS25등에도 입점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설한 전라북도 거시기장터(www.jbplaza.com)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우체국 쇼핑(mall.epost.go.kr) 및 네이버스토어 아이팝(smartstor.naver.com/gunsanbarn)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이젠 포털사이트 어디에서도 군산짬뽕라면을 검색하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군산원예농협은 NH무역을 통해 두 상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한다. 첫 수출이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출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뉴질랜드 시장 내 반응이 좋으면 꾸준한 소비처가 될 예정이다.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은 "군산짬뽕라면이 수출길에 오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며,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군산짬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령효나눔복지센터-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코로나 결식어르신 긴급지원서비스

군산대학교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관장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보령시 남포면, 미산면, 성주면, 주산면, 웅천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량배달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립 위험대상군을 선별하여 마음방역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긴급 키트를 제작하여 배분하는 사업으로, 보령효나눔복지센터가 진행하여 지역주민 40여 명에게 무료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를 포함한 전국 노인복지관이 함께한 이번 나눔활동은 신체적 방역보다 더 뜻깊은 마음방역으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군산시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 '인기'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가 부담스럽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공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비된 공구는 충전임팩트드라이버, 가정용 공구세트 등 18종의 생활공구와 라돈측정기 및 전자파측정기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하는 공구를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다. 시는 고장, 마모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공구를 보완했으며, 대여실적이 높은 공구를 추가 배치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454-256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연속 선정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사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군산시가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과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연속 선정되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구 시청광장에서 '사회적경제 상설장터'를 열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신규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개소 예정인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의 사업 추진내용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 4명의 전문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2년간 지원받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 옥서면, 코로나 극복 위한 희망 나눔 손길

옥서면은 옥서면 부녀회와 옥사모(옥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지난 24일 코로나19극복과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면마스크 2,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제 마스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부녀회와 옥사모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교체용 필터와 함께 원단을 직접 재단, 재봉해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2,000여 장의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면마스크 1장, 교체 필터 5장)는 옥서면 중장년층 이상 전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옥서면 부녀회 박말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만든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석기 면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옥서면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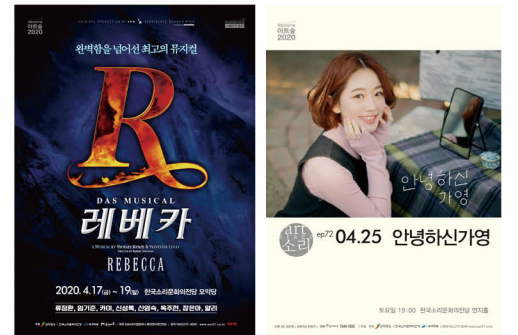
2020 04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EXHIBIT 전시/축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남전 이철우선생 10주기 추모전
2020-04-24 ~ 2020-04-29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합창단 제103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소프라노 설정훈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합창단 제8회 브런치 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뮤지컬 레베카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12	13	14	15	16	17	18
뮤지컬 레베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뮤지컬 레베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아트스테이지소리 ep72: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소라영 Piano Recital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군산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